

제2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구 정 질 문

【 인구소멸에 대한 북구의 대응 방안에 관하여 】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박재완 의원)

인구소멸에 대한 북구의 대응 방안에 관하여

## 구 정 질 문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 발전에 애쓰시는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국적으로 이슈인 ‘인구소멸’에 관한  
우리 구의 대응 방안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말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소멸 위험도 조사에서  
우리 구는 인구감소 소멸 예방지역으로 소멸 우려지역인  
동구와 소멸 선제대응지역인 중구보다는 양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과연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일까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21만 8천 6백여 명이었던 인구가  
지난달 말 21만 7천 5백여 명으로 천 명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 3개월 새 한 달에 3~4백 명씩 인구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인구소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저출산’을 꼽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2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정책은 점차 ‘제로섬 게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늘지 않고 수도권 등 살기 좋은 곳으로만  
인구가 점점 더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교육, 일자리, 문화·의료 인프라 구축 등 타 지자체로부터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구 유입 증대를 위한 우리 구의  
인구소멸 대응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북구는 초·중·고가 구도심에 편중돼 있어  
신도심 지역 학생들이 과대·과밀학급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지 오래지만, 이미 수년째 한창 뛰어놀 학생들의  
건강(체육) 학습권이 박탈당한 지 오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조금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도 불사하는 상황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과대·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둘째, 우리 구는 현대자동차와 관련 협력업체가 위치해 있어 다른 도시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로 산업이 변화해 가면서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점점 설 곳을 잃고 있습니다.

울산일자리재단이 지난해 12월에 작성한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조사 및 전환지도 작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전기차 비중이 45%까지 높아질 경우 울산지역 자동차부품산업 고용 인원수가 2만 8,276명으로 2020년 기준 3만7,682명 보다 9,406명 즉, 25%나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만큼 인구 유입을 위한 좋은 방안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실행 연도, 실행 방안, 예산 등이 담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구가 5개 구·군 중 가장 늦게 출범한 이유도 있겠지만 미술관, 박물관 등 울산을 대표할 만한 편의 및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청장님과 울산시장님, 그리고 현 대통령까지 공약으로 걸어 당연히 유치될 줄만 알았던 ‘공공의료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현재 좌초된 실정입니다.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추진경과를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과 구청장님의 역할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주민 여러분!

인구소멸은 더 이상 다른 지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울산의 출산율은 2023년 2/4분기 기준 가임기 여성  
1명당 0.77명으로 매년 역대 최저를 갱신하고 있고,  
청년층의 탈울산 현상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에 우리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도  
인구감소와 관련된 연구 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속적으로 인구소멸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인구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등  
인구소멸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12.

박 재 완 의원